벤투호, "뒷문 잠가라"… 2차 예선 최대 고비

오늘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레바논전
승리하면 남은 4경기 '꽃길'… 측면 역습 경계해야

'제2의 레바논 쇼크'를 경험하기 싫다면 뒷문부터 철저히 잠가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을 치른다.

H조에서 북한(승점 7·골득실 +3)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선 한국(승점 7·골득실 +10)은 선두를 굳히려면 이번 레바논전에서 이겨야 한다.

승점 3점을 따내면, 4경기 중 3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2차 예선의 후반부를 훨씬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한국 37위·레바논 86위)과 상대 전적(9승 2무 1패)에서 보듯 한국이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 그러나 원정으로 전적을 좁혀보면 2승 2무 1패로 한국의 승률은 크게 떨어진다.

이 중 1패가 8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당한 '레바논 쇼크'다. 한국은 레바논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다닌 끝에 1-2로 졌고, 충격적인 패배의 여파로 감독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홍역을 치렀다.

레바논은 이기고 있을 때라면 늘, 중동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침대 축구'를 펼친다. 그래서 한국으로선 선제골을 내주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레바논 역시 무승부가 아닌 승리를 노리기 때문에 수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H조 2위권의 전력으로 평가되는 레바논은 현재 북한에 이은 3위로 처져있어 이대로라면 최종 예선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8년 전의 짜릿한 승리를 기억하는 레바논은 선 수비 후 역습을 기본 골격으로 경기에 임할 전망이다.

특히, 발이 빠르고 드리블에 능한 측면·중앙 공격수들은 역습에 특화돼있다는 평가다.

주장이자 팀 내 최다 A매치 21골을 기록 중인 하산 마투크와 독일 3부 리그에서뛰는 스물네 살의 '영건' 힐랄 엘헬웨의 발끝이 매섭다. 엘헬웨는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의 최근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다.

빠른 측면 자원들이 이른바 '반대발 윙어'여서 크로스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와 골을 노리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레바논전을 하루 앞둔 13일(한국시간) 손흥민 김신욱 등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위한 최종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팀의 베테랑 측면수비수 이용은 "상대가 빠르고 왼쪽 윙어는 오른발잡이, 오른쪽 윙어는 왼발잡이여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린다"며 경계했다.

레바논에 선제 실점하면 승리하기는 배로 험난해진다. 다행히 벤투호의 수비는 튼실하다. 올 시즌 치른 13경기에서 6골만 내줬고 최근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이다.

벤투 체제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서 호흡을 맞춘 김민재(베이징 궈안)와 김영권(감바 오사카)이 중앙수비로 나서고, 측면 수비에는 왼쪽은 김진수, 오른쪽은 이용(이상 전북 현대)이 설 전망이다.

공격진에서는 손흥민(토트넘)의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최전방에는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의조(보르도)가 선발 출격할 전망이다.

'고공 폭격기' 김신욱(상하이 선화)은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황의조와 교체돼 조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근대5종 간판 이지훈 "도쿄올림픽 간다"

아시아선수권대회서 금메달

제주 근대5종의 간판 이지훈(24, 국군체육부대·사진)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지훈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열린 2019 아시아근대5종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지훈은 개인전에서 펜싱 287점(1위), 수영 300점(7위), 승마 300점(1위), 레이저런(사격+육상) 624점(6위)으로 총 1511점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정진화(30, LH), 김승진(29, 인천체육회)과 팀을 이뤄 4411점을 얻으며 중국(4407점), 카자흐스탄(4264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중학교 때 근대5종에 입문한 이지훈은 제주사대부고와 한국체대를 거치며 꾸준히 기량을 쌓아왔다. 지난해 제주도청 직장운동부에서 활약하다 현재 국군체육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유나이티드, 꿈나무 위한 축구클리닉

24일 도내 초교·클럽팀 대상

제주유나이티드가 '유소년 축구클리닉'으로 제주 축구 꿈나무를 만난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오는 24일 서귀포시 효돈구장과 켄싱턴리조트, 제주월드컵경기에서 '2019 도내 유소년 축구클리닉'을 연다.

축구클리닉은 오전 훈련프로그램, 오후 교육·경기관람으로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KFA) 전임강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훈련을 비롯해 부상 방지와 스트레칭을 위한 교육, 심리교육이 포함됐다. 프로그램은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이 맞붙는 K리그1 파이널라운드 경기 관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축구팀과 U-12 클럽 축구팀 보급반(취미반) 소속 3~6학년 선수이며, 선착순으로 200명(필드 175명, GK 25명)을 모집한다.

학교 또는 클럽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단체는 각 소속 담당자가 인솔 가능해야 한다. 유니폼과 축구화, 수건 등 물품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단운영팀(064-903-1833/738-0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은기자

대만전 완패… 야구대표팀의 '숙제'

김경문 감독 타순 조정 시사
선발 붕괴시 계투 대책 중요

뚝심과 믿음의 승부사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이 국제대회에서 13연승을 달리다가 첫 패배를 당했다.

김경문 감독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9전 전승으로 한국 야구의 올림픽 첫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이어 사퇴한 선동열 전 감독의 뒤를 이어 11년 만에 야구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복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다.

조별리그에서 쾌조의 3연승을 이끈 김 감독은 11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도 미국을 5-1로 꺾으면서 국제대회 연승을 '13'으로 늘렸다.

그러나 12일 대만에 충격적인 0-7 완패를 당해 연승 행진이 멈췄다.

매 경기 이길 수는 없지만, 투타에서 완벽하게 진 대만전 참패는 김 감독에게 큰 숙제를 안겼다.

김 감독은 경기 후 "13~14일 쉬는 동안 김재현 타격코치와 타순 등을 상의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진한 4번 타자 박병호와 6번 양의지의 변동 가능성이 시선을 끈다.

박병호는 이번 대회에서 타율 0.167(18타수 3안타)에 1타점에 머물렀다. 양의지의 타율은 0.133(15타수 2안타)으로 더 저조하다.

마운드 운용도 시험대 위에 올랐다. 한국은 양현종, 김광현, 박종훈 세 선발 투수의 호투와 이영하·이용찬·조상우 등 새 필승계투조의 조합으로 조별리그와 미국전까지 4경기를 가뿐히 넘었다. 4경기 평균자책점은 0.50에 불과했다.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2차전 대만과 한국의 경기. 4회초 추가 실점한 김광현이 교체돼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광현이 3실점하고 무너진 대만전에서 구원 원종현마저 스리런 포를 헌납한 바람에 한꺼번에 7점이나 주고 무릎을 꿇었다. 선발의 조기 붕괴 후 계투 대책이 중요해졌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15일 멕시코와의 경기에는 박종훈이 등판할 게 유력하다. 대만전에서 쉰 필승 계투조도 출격 채비를 갖췄다.

일본전과 17일 치를 동메달 결정전 또는 결승전의 마운드 전략은 아직 불투명하다.

16일엔 양현종이 이번 대회 세 번째로 출격할 가능성이 짙다. 17일은 예정대로라면 김광현이 닷새 만에 등판하는 날이다. 연합뉴스

최강 2세 제주마 가린다
16일 '제주마 브리더스컵'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가 오는 16일 최강 2세 제주마를 결정짓는 '제주마 브리더스컵 2019'(6R, 900m)를 개최한다. 총상금 9000만원이 걸린 브리더스컵은 올해 데뷔한 2세 제주마를 한정으로 시행되는 대상경주다.

최대 관심마는 6전 5승 2착1회의 기록을 지난 '충무공'(제주마 2세 거세)이다. 직전 핸드캡 경주(1000m)에서 연승을 달리던 '제천대성'(제주마 2세 암)과 '삼다제패'(제주마 2세 수)를 누르고 우승하며 최강자로 떠올랐다.

충무공에 연승 행진이 막힌 제천대성과 삼다제패의 설욕 여부도 관심사다. 거기에 최근 경주에서 2위마와 20여 마신차로 승리하며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초시대'(제주마 2세 거)와 아직 전력을 다한 경기를 보여준 적 없는 '미래황제'(제주마 2세 수)가 가세하며 우승마 추리에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최강 2세 제주마 타이틀이 걸린 이번 대상경주는 2020년 제주 경마의 판세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 경마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숨터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8:00 딩동댕 유치원 9:30 다큐동화 달팽이 10:00 지식의 기쁨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5:10 코코몽3 15:55 슈퍼공룡파워 16:10 예술아 놀자 16:40 딩동댕 친구들 17:30 페파 피그 19: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쥐라기 캅스 쥬라킹 14: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14:40 시노스톤 15:10 우리말 겨루기(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2:10 우아한 모녀(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또봇V 17:15 핑크퐁 원더스타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3:20 꾸러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15:55 두 번은 없다(재) 17:00 5 MBC 뉴스 17:25 앙코르 MBC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전국 TOP10 가요쇼(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 90.9㎒**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다큐 인사이트 22:55 더 라이브 23:35 하룻밤 여행 소리랑 23:40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 특집 미스터리 추적 안중근의 총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우아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제보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해피투게더	18:25 테마기행 길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21:30 어쩌다 발견한 하루 22:05 다큐에세이 그사람 23:05 제주MBC 시사진단	18:00 행복설계 알짜배기 19:00 제주를 말하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시크릿 부티크 22:40 시크릿 부티크 23:10 접속! 무비월드 1부 23:50 접속! 무비월드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대한민국 구석구석 10:30 내 별명은 대토령 12:10 FACE OF JEJU 1부 제주의 두 얼굴 13:00 KCTV 13시 뉴스 14:00 취미로 먹고 산다 16:10 얼마예요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0:00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22:00 FACE OF JEJU 1부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14(토)

오늘의 운세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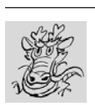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48년 세무조사나 위생 검열 등 과태료가 있어 스트레스. 60년 투자, 투기 등 과욕은 금물. 경제관념이 중요. 창업·개업은 심사숙고. 72년 활달하고 명랑함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경거망동으로 보일 수 있으니 언행조심. 84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지출이 늘어난다.

37년 과격한 언행은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여유와 너그러운 생활습관이 필요. 49년 평소의 방식을 변경하면 불리하니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 61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니 모진 말은 삼가할 것. 73년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다. 85년 자격증은 미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38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목 또는 길사가 찾아온다. 50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에 인정 받는다. 62년 여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74년 자존심과 독단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 부부관계는 사랑과 배려가 최선. 86년 시험이 있다면 신중함을 가져라.

39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점차 해소된다. 51년 내 뜻대로 되지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실속없이 분주하다. 63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한다. 75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87년 동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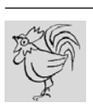

40년 가정의 화합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안식처 가정이 최우선. 52년 내 손과 발을 상대는 필요로 한다. 내 도움을 나누어 줄 일이 있다. 64년 자녀일로 즐거움도 있지만 금전 지출도 있다. 76년 내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 88년 직장, 취업, 학교의 소식이 있다. 최선을 다 해 경주하라.

41년 피곤함은 온천욕이 마음을 만족시킨다. 53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건은 좋은 일이 있다. 65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듯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7년 비온 뒤에 하늘이 청명하듯이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비워라. 89년 마음먹은 일이 안풀리면 여행을 하거나 서점에서 쇼핑하라.

42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줄 것. 54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타협점도 생각한다. 66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거나 이성으로 고민이 생긴다. 78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윗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90년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형국.

43년 식장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쁨도 있다. 55년 신용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대인관계 넓혀라. 67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논쟁이,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 간다. 7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을 하니 참으면 해소된다. 91년 거절을 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 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44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6년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68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과점수에 반영됨. 80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어라 안풀면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92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45년 한마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7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구설이 따르고 자녀 일에 관심을. 69년 인간관계에서 모함 또는 시기·질투가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마음이 불안 초조하다. 이성관계 불화. 93년 나의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46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58년 동업시 언쟁을 조심해야. 기득권을 가지고 논쟁도 한다. 7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82년 외모에 신경을 쓰고 가꾸려 한다. 머리, 옷에 지출하게 된다. 94년 형제의 화합과 건강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7년 수입이 생기고 전문직은 바쁜 일이 생긴다. 59년 주면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단체봉사에 참여하기도. 71년 돌탑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 달성이 근간에 와 있다. 83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충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95년 친구들의 만남이 흥겹고 대화가 즐겁다.